

조선 시대 번역의 사회문화적 기능*

김 정 우
(경남대)

1. 머리말

본고는 조선 시대¹⁾에 생산된 번역물을 시대별 및 내용별로 분류하고, 각각의 번역이 이루어진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찰하여, 조선 시대의 번역 활동이 당대의 사회와 문화의 발전에 기여한 사회문화사적 의의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번역의 기능과 역사라는 두 가지 변수를 통해서 조선 시대의 번역 현상을 바라보고자 하는 우리의 이러한 시도는 궁극적으로 한국 번역사 연구의 일환으로 한국 번역사의 전개 과정을 합리적으로 기술하고 그 내용을 풍부하게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 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7-A00908).

1) 여기서 '조선 시대'라는 시간적 경계는 갑오개혁이 일어난 1894년까지로 잡는다. 조선 시대는 3차에 걸친 갑오개혁을 경계로 전통 봉건사회가 막을 내리고 근대화의 길로 접어들기 때문이다.

살찌우는 데 중요한 토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비교문학과 응용언어학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벗어나 독자적인 학문의 영역을 구축하게 된 번역학은 20세기 말엽에 접어들면서 스스로의 학문적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움직임이 바로 번역사와 관련된 논의이다. 무릇 모든 학문 분야에서, 그 학문의 역사 또는 연구 대상의 역사는 심화와 성숙의 과정에서 해당 학문 자체와 서로 가역적인 상호작용을 수행한다. 예컨대 영어발달사를 원만하게 기술하려면, 각 시기의 영어, 곧 고기영어(古期-), 중기영어(中期-), 근대영어 및 현대영어 등의 공시대에 담긴 음운, 형태, 통사, 어휘의미 등에 대한 상당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만 일단 영어발달사가 기술되고 나면, 이번에는 앞서와 반대 방향으로 영어발달사의 기술 자체가 영어학의 시기별 및 분야별 연구의 흐름과 깊이를 총체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잣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번역학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것은 번역학이 발생적으로 번역이라는 실용적 행위와 표리의 관계를 이루기 때문이다.

번역사가 번역학의 독자적인 연구 영역으로 자리잡은 것은 핼(Pym)의 『번역사 방법론』(*Method in Translation History*, 1998)의 출간과 때를 같이한다. 즉, 핼에서는 확고한 역사적 관점과 기술 태도에 입각해서 번역사의 연구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번역사 기술의 과학적 방법론을 체계화했다. 따라서 번역사는 홈즈(Holmes, 1972)에서 제기한 기존의 번역학 분류 체계상 ‘결과물 중심’(product oriented) 연구와 ‘시대별’(time restricted) 연구에 속하던 것이며 (핼 2에서 재인용),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핼은 새로운 연구 영역을 개척했다기보다 역사라는 일관된 관점을 가지고 기존의 연구 영역을 재해석하여 체계화한 것이다. 핼(1-19)에서는 이처럼 특정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모든 번역의 결과물을 역사, 곧 연대기라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조망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번역사의 인문학적 정체성을 제시한다.

- (가) 번역 자료가 생성된 특정 시간과 공간에 대한 사회적 원인의 탐구
- (나) 번역 텍스트를 생산한 번역가에 대한 일차적인 관심
- (다) 사회·문화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 내용 구성
- (라) 과거 사실의 현재적 해석이라는 존재 의의

요약하면 번역사에도 번역고증학(translation archaeology)이라는 분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여타 번역학의 관심이 번역 현상이나 번역물 자체에 있다면, 번역사의 관심은 특정한 번역을 생산한 사회적·문화적·인적 배경 내지 토대와 그러한 번역이 당대와 후대에 미친 영향에 있는 것이다. 논의를 더욱 단순화한다면, 번역사는 특정 시대 번역의 사회·문화적 기능에 대한 역사 비평적 탐구와 해석학적 의미 부여에 관심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번역사의 과제를 위와 같이 ‘특정 시대 번역의 사회·문화적 기능에 대한 탐구와 현재적 의미 부여’로 정의할 수 있다면, ‘조선 시대 번역의 기능적 양상’을 다루고자 하는 본 연구도 궁극적으로 한국 번역사의 연구에 귀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조선 시대의 번역과 번역사 연구

2.1. 조선 시대와 번역

조선 시대는 우리 번역 문화의 황금기였다. 물론 학계 일각에서 한글(TL, written Korean) 번역의 역사를 19세기 말엽에 이루어진 『유옥역전』(1895) 혹은 『천로역정』(1895)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한정하려는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남성우 32-33), 이는 지나치게 근대적 가치관에 함몰된 서구중심적 시각이다. 번역을 대하는 관점을 중국어 문어(=한문, written Chinese)와 한국어의 상호교섭으로 확대한다면, 한국 번역의 역사는 마땅히 조선 시대 혹은 그 이전에 이루어진 자료에 대한 면밀한 기술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 설 때, 우리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최고 수준의 번역 자료를 생산해낸 조선 시대라는 번역의 황금기와 만나게 된다. 조선 시대의 번역 자료는 대단히 광범위하여 직접적으로 ‘언해’ 또는 ‘번역’의 양식을 보이는 서책(예 『번역소학』, 『소학언해』)만 해도 백여 종이 넘으며, 그밖에 『원각경구결』처럼 한문 원문에 구결(口訣)을 붙인 서책이나 『사성통해』와 『천자문』처럼 한자에 독음을 단 서책 등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수효는 실로 방대하다. 조선 시대의 번역 자료는 이처럼 양적으로만 풍부한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종교 경전(불교와 유교, 도

교, 천주교), 의학, 역학, 문학 등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고 있다.²⁾ 그러므로 조선 시대의 번역 자료는 질과 양 모두에서 번역의 사회문화적 기능을 논의하기에 결코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2.2. 조선 시대 번역사 연구의 의의

우리는 앞의 2.1절에서 번역사 연구에서 조선 시대가 차지하는 일반적인 성격을 기술했다. 여기에 덧붙여, 우리는 조선 시대의 번역 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번역학적 의의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는 곧 조선 시대 번역의 사회문화적 기능을 천착하고자 하는 우리의 연구가 갖는 당위성으로 귀결된다.³⁾

조선 시대 번역사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 번역사의 만족스러운 기술을 위한 필요성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한국 번역사에서 가장 풍부한 번역 자료를 생산한 시기는 조선 시대이므로 한국 번역사를 원만하게 기술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의 번역 자료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조선 시대 번역 자료에 대한 간략한 소개(유명우 2002)를 제외하면, 번역학의 관점에서 개별 번역 자료가 그 배경이 되는 시간과 공간에서 어떠한 성격을 갖는가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나) 번역학 일반 이론의 검증과 새로운 일반 이론의 개발에 기여하기 위한 필요성이다. 예컨대 15세기 조선 시대의 번역 자료는 동서고금에 걸쳐 역사적으로 전개된 다양한 번역의 양식을 거의 모두 시험해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화경언해』와 『석보상절』처럼 동일한 한문 원전을 두 번 이상 번역한 사례를 통해, 우리는 당시의 번역자들이 직역(=원천언어 중심 번역, 축자번역)과 의역(=목표언어 중심 번역, 의미번역)의 개념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개념을 실제 번역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고민을 경험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문을 보면 원문과 주해문의 필요한 곳에 구결이 달려 있는데, 이는 행간번역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원문의 난해 어구 등

2) 이현희(1996)과 김석득(2001) 참고. 형태와 내용에 따른 조선 시대 번역의 구체적인 목록은 제5장에 다시 소개된다.

3) 거시적인 관점에서 조망한 번역사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김정우(2008 29-32)를 참고할 수 있다. 논의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에 달린 주해를 보면 이들 번역을 이른바 ‘주석이 첨가된 완벽한 번역’의 한 가지 전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들 조선 시대 번역 자료는 번역 양식에 관한 일반 이론에 훌륭한 사례를 제공해주는 동시에, 조선 시대 번역가들 나름의 창의적인 번역 기법과 번역관 등을 드러내어 그 핵심을 일반 이론에 추가해주는 좋은 바탕 자료가 될 수 있다.

(다) 번역과 사회 발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논의를 위한 필요성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번역과 사회 발전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는, 예컨대 ‘번역이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에 미친 영향’ 등과 같이 대체로 거시적인 흐름으로 일관되어 온 경향이 있다. 거대 담론은 그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지만,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이 뒤따라야만 그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선이라는 특정 시기의 번역을 사회문화사적 잣대로 점검하려는 본 연구는 적잖은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3. 연구사 개관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번역사’라는 독립적이고 확고한 주제 의식 아래 이루어진 번역사 연구는 10년이 채 경과하지 않은 관계로, 그 연구 성과 역시 양적으로 많지 않은 실정이다.⁴⁾ 지금까지의 연구 동향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모나 베이커(Mona Baker)가 저술한 『번역학 사전』(*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1998)의 번역사 서술 태도이다. 즉, 이 책의 제2부에는 30여개 국가(언어권)에서 이루어진 번역사 연구의 집약적 성과가 담겨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주로 언어의 형성과 발달, 언어 간의 접촉 혹은 대표적 번역 작품의 소개 등으로 일관되어 번역의 기능적 측면에 관한 서술이 대단히 빈약하다. 이러한 경향은 번역사의 기술을 자칫 무미건조한 연대기적 사실의 서술로 몰아갈 위험성이 있다. 앞서도 말했듯이, 번역사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과제는 번역 현상 자체라기보다, 해당 번역과 그 번역을 낳은 사회의 역

4) 이 방면에 관한 일반적인 연구사와 개별 논저에 대한 비판적 분석에 대해서는 김정우(2008 32-34)를 참고할 수 있다. 논의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여기서 다시 언급하지 않는다.

동적인 상호관계를 규명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한국 번역사 분야에 대한 연구는 5, 6편 정도의 논문이 이 분야에서 거둔 연구 성과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 연구의 흐름을 보면, 유명우(2002)에서는 번역사의 방법론을 소개하고 그 개념과 원리를 시험적으로 한국 번역사의 시대 구분에 적용했고, 김정우(2005)에서는 번역사 연구의 전체가 되는 번역의 외연을 확정하고자 했으며, 김정우(2008)에서는 한국 번역사의 포괄적인 시대 구분 작업을 시도했다. 한편 유명우(2004)에서는 한글 창제와 관련하여 언해 번역이 갖는 언어정책 및 사회정치적 의미를 논의했고, 전현주(2004)에서는 다중체계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 현대 번역문학사를 논의했으며, Kim, Ji-won(2008)에서는 한국의 문자 사용 양상을 시대별로 개괄하고 번역물 출간과 번역 교육, 번역가 조직 등 한국의 번역 현황을 소개했다. 따라서 이들 연구는 본격적인 한국 번역사를 연구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일종의 준비 단계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 가운데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유명우(2004)와 전현주(2004)이다. 전자는 언해 번역의 번역사적 의의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후자는 다중체계 이론을 연구 방법론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이 두 연구를 좀더 상세하게 검토해 보자.

유명우(2004 86-88)에서는 언해의 번역사적 의의를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는 새로 창제된 훈민정음이 문자로서 갖는 실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측면이고, 둘째는 왕조의 사적을 공고하게 다지기 위한 수단이라는 측면이다. 그리고 전현주(2004 178)에서는 원전의 SL이 차지하는 통계 수치(예 영국 128건, 미국 192건, 일본 7건 등)에 주목하여, 한국의 현대 번역문학사에 백색문학 편중성, 거장 위주 소개, 출판사의 마케팅 전략, 독자의 선호도 등 네 가지 체계가 번역물의 선정에 작용했다는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다.

그러나 유명우(2004)는 거시적 관점을 견지한 관계로 기술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일반적으로 흘렀다는 한계를 지적할 수 있고, 전현주(2004)는 문학이라는 특정 장르만을 대상으로 번역사를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분석 태도가 번역에 대한 양적인 분석에 그쳐 번역 물량의 외형적 파악에 머무르고 있을 뿐 체계 내부를 들여다보는 내성적(內省的) 관점이 결여되었다는 점에서, 번역의 기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그리하여 본고의 지향점과 확연한 차이를 드러낸다.

결과적으로 본고에서 시도하고자 하는 번역의 사회문화적 기능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 자료와 이론적 배경

4.1. 조선 시대의 번역 자료

본고는 조선 시대에 생산된 모든 번역 자료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는 시간적으로 조선의 건국이 이루어지는 14세기 후반부터 조선 사회가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기 직전인 19세기 말엽까지(갑오경장 이전)를 아우르게 된다.⁵⁾

여기서 ‘번역 자료’라는 말은 번역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에 부합하는 자료를 지칭한다. 다시 말해 일찍이 야콥슨(Jakobson, 1959)이 제시했던 세 가지 유형의 번역 현상, 즉 언어 내 번역(intralingual translation)과 언어 간 번역(interlingual translation) 및 기호 간 번역(intersemiotic translation) 가운데서 본 연구에서는 ‘언어 간 번역’만을 진정한 번역(translation proper)으로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언어 간 번역’을 진정한 번역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번역에 대한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통념과도 어긋나지 않는 동시에, ‘다른 두 언어 간에 일어나는 정보나 지식의 이동이나 재현’(유명우 2004 72)까지를 번역으로 볼 때 빚어지는 무한정한 연구 대상의 확대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전제도 된다. 결과적으로 문어로든 구어로든 원전(original text)을 상정할 수 없는 텍스트는 번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번역관에 따라 본 연구의 검토 대상이 되는 번역 자료를 대략적으로 제시하되, 자료의 유형을 각각 형태적인 기준과 내용적인 기준으로 나누어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⁶⁾

- 5) 번역의 기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는 최초의 출현 시기가 중요하므로 가급적 초간본의 간행 연대를 기준으로 삼는다. 여러 차례 중간된 문헌은 그렇지 않은 문헌보다 사회문화사적 가중치가 높을 가능성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미처 그런 가능성까지 다루지는 못했다.
- 6) 구체적인 자료의 형태와 양식에 대해서는 김정우(2008 35-38)을 참고할 수 있다. 중복을 피하기 위해 여기서는 개략적인 서술에 그치기로 한다.

형태적인 기준에 따라 번역 자료의 유형을 분류할 때, 한국 번역사의 서장을 장식하는 것은 이두 번역 자료가 된다. (물론 여기서 주목하는 자료는 표기로서의 이두가 아닌 번역의 수단으로 활용된 이두 자료이다.) 다음으로는 구결 자료가 있다. 주지하디시피 구결에는 음독구결과 석독구결⁷⁾이 있는데, 조선 시대의 구결 자료는 종교 경전을 번역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확정되는 음독구결이 거의 대부분이다. 다음으로는 석의류 자료가 있는데, 이는 한문 원전에 대한 번역이 포함된 종합적인 번역 비평서⁸⁾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조선 시대 번역 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음 번역 자료가 있다.

내용적인 기준에 따라 번역 자료의 유형을 분류하면, 불교와 유교 경전 등을 우리말로 옮긴 종교 경전류와 외국어 학습이나 교육 및 문학, 문자학 등에 관한 역학서(譯學書)류, 시가 등의 문학서류, 옥편과 어휘집 등 어학서류, 의학과 농학, 병학 등의 실용서류 등이 있다.

4.2. 이론적 배경

본고를 일관하는 두 가지 관점은 번역의 기능과 역사이다. 이를 개략적으로 말한다면, 조선 시대의 번역이 당대의 사회문화적 인프라에 미친 영향을 역사적으로 조망해 보려는 것이다. 즉, 사회문화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하는 조선 시대의 전반적인 발달 과정에 번역이 기여한 긍정적 기능을 확인하려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

언어에 관한 연구에서 흔히 논의되듯이, 무릇 통시태에 대한 성공적인 연구는 개별 공시태에 대한 충실한 연구 성과의 축적을 전제로 한다. 번역사의 연구도 이러한 기본 가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즉, 본고의 주제인 ‘조선 시대 번역의 사회문화적 기능’도 각 시기(예 왕조별)에 이루어진 개별 번역에 대한 정밀한 연구의 축적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개별 번역의 기능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축적되면, 다음 단계에서는 이들 개별 번역의 기능을 통시적인 안목으로 종합하게 된다. 이때 번역의 기능을 주된 매개변수로 활용하여 조선 시대

7) 음독구결은 한자를 음에 따라 읽는 것이고, 석독구결은 새김에 따라 읽는 것이다. 구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남풍현(1998, 1999)를 참고할 수 있다.

8) 김정우(2008 37) 참고.

의 번역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중체계 이론’(polysystem theory)이 본 연구에 유용하게 적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4.2.1. 다중체계 이론의 전개와 일반화 가능성

본고에서는 특정 시기에 생산된 번역의 총체가 다수의 경쟁적 체계인 다중 체계를 구성하고, 이들 체계의 상호 경쟁이 곧 체계의 발전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다중체계’ 이론이란 로만 야콥슨 등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의 체계 개념을 토대로 텔아비브 출신의 번역학자 에벤 조하르(Itamar Even-Zohar)가 제창한 것으로, ‘번역 작품과 비번역(=창작) 작품이 서로 주도권을 잡하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한다’는 명제를 핵심 개념으로 한다. 이러한 개념을 발전시킨 서유럽의 조작학파는 목표언어의 문학권에서 번역 작품이 차지하는 영향력을 중시하고, 번역된 텍스트를 원전 텍스트에 종속되지 않은 자립적 유형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게 된다. 이들은 문학 자체를 다중체계로 보았는데, 이는 주어진 문학권에서 다양한 장르와 사조 등의 제반 요인이 각각 자립적인 체계를 구성하면서 독자라는 최종 수요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서로 부단히 투쟁한다는 뜻이다. 물론 이러한 문학의 다중체계는 해당 문학을 배태한 사회문화의 다중체계에 하나의 구성원소(=체계)로 참여하게 된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다중체계 이론은 원래 문학 내지 번역 문학 패러다임의 변화와 발전 과정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출발했지만, 우리는 이 이론이 문학이 아닌 일반 번역물의 패러다임을 규명하는 작업에도 유효할 것으로 믿는다. 기본적으로 하나의 체계를 구성하는 여러 체계가 서로 경쟁하면서 변증법적으로 진화하고 발전한다는 개념은 비단 문학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다른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주장을 번역사의 연구에 접목하면, 특정한 문화권에서 생산되는 모든 유형의 저술과 경쟁관계를 이루면서 발전하는 번역 텍스트의 기능과 그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조선 시대와 같은 전근대적 사회에서 국가 주도로 생산된 번역은 그 총량이 현대 사회에서처럼 크지 않아 비교적 용이하게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관계로, 다중체계 이론을 (문학 장르를 벗어난) 모든 장르로 확대해서 검토하는 작업이 충분히 가능하다. 예컨대 다중체계 이론에서는 번역 문학이 당대의 가장 지배적인 체계

모니 원천문화를 따르며, 이는 다시 문학사상(文學史上) 중요한 사건과 관련되는 경향이 있다(전현주 2004 169)고 하는바. 우리는 이러한 일반론적 진술이 조선 시대 번역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기본 가정에 입각하여, 우리는 조선 시대에 생산된 다양한 유형의 번역물을 대상으로, 하나의 체계로 대표되는 각각의 유형이 어떻게 역동적인 진화 과정을 보이는가를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한국 번역사의 내용적 측면을 기술하고자 하는 것이다.

4.2.2. 다중체계 이론에 입각한 작업가설의 수립

우리의 연구는 조선 시대에 생산된 번역물의 총합이 다중체계를 이루고, 이들 체계의 상호 경쟁 내지 투쟁을 통해 번역의 긍정적 기능이 조선의 사회문화적 발전에 기여했으리라는 기본 전제에서 출발했다. 본고에서 채택한 구체적 작업가설의 전개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자료의 확정

‘진정한 번역’의 정의에 부합하는 조선 시대의 번역 자료 목록을 작성하는 단계이다. 여기에는 이 시기에 이루어졌고 간행 연대가 분명한 모든 번역 자료가 포함되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의 문집이나 서간집 등을 제외한 문헌 자료로 한정된다. 구결 자료는 같은 원전을 번역한 언해서가 있는 경우에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예컨대 『원각경구결』은 동일한 원전을 번역한 『원각경언해』가 있으므로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훈몽자회』 등의 한자 학습서나 『천자문』 등의 자전류는 한글로 자석과 독음이 달려 있으므로 광의의 번역(음성 번역)으로 보아서 검토 대상 자료에 포함시켰다.

(나) 자료의 분석과 분류

위 (가) 단계에서 검토 대상 자료로 확정된 모든 번역 자료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각 번역물의 성격을 규정하는 단계로, 개별 번역 자료에 대한 공시적인 기술에 해당한다. (단, 여기서 말하는 공시적 기술이란 내용별 분류의 확정과 형식적 특이성에 대한 언급을 가리킨다. 개별 자료의 구체적인 서지 사

항이나 상세한 해제 등은 본고의 일차적인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개별 번역 자료에 대한 성격 규명과 이를 근거로 한 분류 작업이 마무리되고 나면, 조선 시대 번역물 전체에 대한 통시적이고 체계적인 조망이 가능해질 것이다.

(다) 사회문화적 기능 탐색

개별 번역 자료에 대한 성격 규명과 이를 토대로 한 전체 번역물의 내용적 분류가 이루어지고 나면, 번역의 기능에 대한 논의가 가능한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즉, 이 단계에서는 이들 번역이 조선 시대의 사회문화 발달에 미친 영향을 탐색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해당 자료의 기능을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조선왕조실록』 등 간접 자료를 활용하여, 해당 번역을 둘러싼 주변 상황이나 번역자 및 같은 시기에 생산된 비번역 문헌 등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게 된다. 예컨대 『조선왕조실록』의 세종조 기사에 의하면, 이 시기에는 훈민정음의 창제를 돕기 위한 언어학 이론에 관한 연구가 대단히 활발했으며, 농업과 역사, 법률, 지리, 문학 등은 물론 천문학 등의 과학기술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한편, 국토의 확장과 개척을 위한 병학 연구도 게을리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다방면에 걸친 사회문화적 발달과 번역서의 출간이 과연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이 단계의 주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라) 사회문화적 기능의 변천 확인

위 (다) 단계에서 수립한 조선 시대 번역의 사회문화적 기능이 조선 시대의 사회문화적 발달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본 연구의 최종 단계이다. 여기서는 앞서 다중체계 이론에서 제시되었던 다음과 같은 일련의 가정이 본 연구에서도 유효한가를 검증하게 된다.

- ㄱ. 특정 시기에 생산된 번역의 총체는 각기 독자적인 체계를 구성한다.
- ㄴ. 이들 체계는 서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부단한 상호 경쟁을 벌인다.
- ㄷ. 이들 체계의 상호 경쟁 과정은 변증법적인 진화 양상을 보인다.
- ㄹ. 특정 시기 특정 번역물의 수요는 관련 체계들이 견인한 결과이다.
- ㅁ. 번역은 특정 문화 체계에서 작용하는 제반 관계에 의존하는 행위이다.

예컨대 동일한 종교 경전의 번역 안에서도 유교 경서와 불교 경전이 벌이는 긴장관계 등을 구체적인 양상으로 확인하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라) 단계는 앞서 논의된 번역의 사회문화적 기능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재구성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마) 번역의 사회문화적 기능과 그 의미의 규정

조선 시대 번역의 사회문화적 기능과 그 변천에 관한 논의가 끝나면, 이제 우리는 그 결과를 조선 시대 사회문화의 일반적인 역사적 흐름과 비교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특히 중요한 사회 변화에 따라 번역의 기능이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주목한다. 다시 말해서 조선 시대 초기의 국가 체제 확립이라든가, 조선 중기에 겪은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등의 대전란, 혹은 조선 후기에 대두된 실학사상의 출현을 목격한 조선 사회가 어떤 사회문화적 갈등을 유발했으며, 이러한 사회문화적 수요를 어떤 번역이 적절하게 만족시켰는가를 추적해보려는 것이다.

5. 자료의 수집과 분석

5.1. 자료의 확정과 분류

조선 시대의 번역 자료를 시대별로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본 절의 목표이므로,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는 시간의 흐름이나 왕권의 교체, 중요 사건 등이 될 수 있다. 여기서는 일단 기초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시간의 흐름을 기준으로 삼아 100년을 단위로 분류하기로 한다.⁹⁾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조선 시대의 번역 자료를 세기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¹⁰⁾

9) 이러한 시간 구분은 편의에 따른 것으로 주된 논지 전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0) 다음에 제시하는 자료의 서명은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기한다. 단, 본문에서 이두를 이용한 번역서의 경우와 한문 전적은 원래 서명대로 먼저 한자로 표기한 다음에 괄호 안에 한글을 병기한다(15세기의 01번, 02번 및 16세기의 11번 자료 등).

(1) 세기별 조선 시대 번역 자료 일람표

(가) 15세기

01. 『大明律直解』¹¹⁾ 1395년 - 법령
02. 『養蠶經驗撮要』 1415년 - 농사(잠업)
03. 『용비어천가』 1447년 - 문학(시가)
04. 『석보상절』¹²⁾ 1447년 - 불경
05. 『세종어제훈민정음』(훈민정음 언해) 1447년 - 역학(문자학)
06. 『홍무정운역훈』 1455년 - 역학(운학)
07. 『능엄경』 1462년 - 불경
08. 『지장경』 1462년 - 불경
09. 『법화경』 1463년 - 불경
10. 『금강경』 1464년 - 불경
11. 『반야심경』 1464년 - 불경
12. 『불설아미타경』 1464년 - 불경
13. 『선종영가집』 1464년 - 불경
14. 『오대산상원사중창권선문』¹³⁾ 1464년 - 서간문(불사)
15. 『원각경』 1465년 - 불경
16. 『목우자수심결』 1467년 - 불경
17. 『법어』 1467년 - 불경
18. 『구급방』 1469년 - 의학
19. 『몽산화상법어』 1472년 - 불경
20. 『내훈』 1475년 - 유학
21. 『명황계감언해』 1477년 - 역사(인물)
22. 『두시언해』 1481년 - 문학(시가)
23. 『삼강행실도』 1481년 - 유학

-
- 11) 이두를 사용하여 『大明律』을 우리말로 번역한 자료인데, 표기는 한자를 포함한 이두 문자로 되어 있지만 한문 원전과 별개로 완전히 새로 쓰여진 텍스트라는 점에서 진정한 번역이 되기에 손색이 없다. 이하 (가)의 02와 (나)의 11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간행 연대가 1395년이지만 편의상 15세기 자료에 포함시켰다.
 - 12) 제목에 ‘언해’라는 표현은 없지만, 「석가보」, 「법화경」, 「지장경」, 「아미타경」 등에서 내용을 뽑아서 찬술한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번역서로 볼 수 있다.
 - 13) 세조가 쓴 「상원사어첩」을 받고, 신미와 학조 등이 사례의 뜻을 담아 올린 서찰인데, 한문 원문과 한글 번역문이 같이 실려 있다. 번역은 구결의 제약을 받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되어 있다.

24. 『남명집』 1482년 - 불경
25. 『금강경삼가해』 1482년 - 불경
26. 『관음경』 1485년 - 불경
27. 『오대진언』 1485년 - 불경
28. 『구급간이방』 1489년 - 의학
29. 『이로과』¹⁴⁾ 1492년 - 역학
30. 『시식권공』 1496년 - 불경
31. 『육조대사법보단경』 1496년 - 불경

(나) 16세기

01. 『속삼강행실도』 1514년 - 유학
02. 『사성통해』 1517년 - 역학(운학)
03. 『번역소학』 1518년 - 유학
04. 『이륜행실도』 1518년 - 유학
05. 『정속언해』 1518년 - 유학
06. 『여씨향약』 1518년 - 유학
07. 『경민편』¹⁵⁾ 1519년 - 유학
08. 『별행록절요언해』¹⁶⁾ 1522년 - 불경
09. 『간이벽온방』 1525년 - 의학
10. 『훈몽자회』 1527년 - 역학(문자학)
11. 『촌가구급방』 1538년 - 의학
12. 『牛馬羊猪染疫治療方』 : 1541년 - 의학(수의학)
13. 『분문온역이해방』 : 1542년 - 의학
14. 『영험약초』 : 1550년 - 불경(진언집)
15. 『불설대부모은중경언해』 : 1553년 - 불경
16. 『구황촬요』 : 1554년 - 농사
17. 『성관자재구수육자선정』(육자선정) : 1560년 - 불경
18. 『선가구감언해』 : 1569년 - 불경
19. 『진언집』 : 1569년 - 불경
20. 『천자문(광주)』 : 1575년 - 역학(자진)

14) 일본 문자의 독음 표기에 한글이 사용되었다. 일종의 음성 번역 자료이다.
 15) 1519년에 간행된 것은 원간본이지만, 현재 전하지 않고 1579년과 1658년에 간행된 중간본이 전하는 관계로 『중간경민편』으로 불리기도 한다. 간행 기록이 분명하므로 16세기 자료로 삼았다.
 16) 이현희(1996 237)에 소개되어 있다.

21. 『계초심학인문』 : 1577년 - 불경
22. 『발심수행장』 : 1577년 - 불경
23. 『야운자경』 : 1577년 - 불경
24. 『중간경민편』 : 1579년 - 유학
25. 『천자문(석봉)』 : 1583년 - 역학(자전)
26. 『소학언해』 : 1587년 - 유학
27. 『칠서언해』 : 1590년 - 유학
28. 『효경언해』 : 1590년 - 유학

(다) 17세기

01. 『언해두창집요』 : 1607년 - 의학
02. 『언해태산집요』 : 1608년 - 의학
03. 『사서삼경석의』 : 1609년 - 유학
04. 『연병지남』 : 1612년 - 병학
05. 『동국신속삼강행실도』 : 1617년 - 유학
06. 『가례언해』 : 1632년 - 유학
07. 『마경초집언해』 : 1635년 - 의학(수의학)
08. 『화포식언해』 : 1635년 - 병학
09. 『신전자취엽초방언해』 : 1635년 - 병학
10. 『구황촬요벽온방』 : 1639년 - 농사
11. 『벽온신방』 : 1653년 - 의학
12. 『노걸대언해』 : 1670년 - 역학
13. 『첩해신어』 : 1676년 - 역학
14. 『박통사언해』 : 1677년 - 역학
15. 『대다라니진언집』 : 1688년 - 불경
16. 『역어유해』 : 1690년 - 역학(자전)

(라) 18세기

01. 『유합』 : 1700년 - 역학(자전)
02. 『천자문(송광사)』 : 1700년 - 역학(자전)
03. 『소아론』 : 1703년 - 역학
04. 『미타참절요』 : 1704년 - 불경
05. 『청어노걸대』 : 1704년 - 역학
06. 『오륜전비(기)언해』 : 1721년 - 역학(회곡)
07. 『중간첩해신어』 : 1721년 - 역학

08. 『어제백행원』 : 1725년 - 유학
09. 『전일도인』 : 1729년 - 역학
10. 『주성연스묘응진경』 : 1734년 - 도교
11. 『경서정음』 : 1735년 - 역학
12. 『어제내훈언해』 : 1736년 - 유학
13. 『여사서』 : 1736년 - 유학
14. 『대미타참약초요람보권염불문』(염불보권문) : 1741년 - 불경
15. 『몽어노걸대』 : 1741년 - 역학
16. 『어제소학언해』 : 1744년 - 유학
17. 『어제상훈언해』 : 1745년 - 유학(경세)
18. 『어제자성편언해』 : 1746년 - 유학(경세)
19. 『동문유해』 : 1748년 - 역학
20. 『논어율곡선생언해』 : 1749년 - 유학
21. 『대학율곡선생언해』 : 1749년 - 유학
22. 『맹자율곡선생언해』 : 1749년 - 유학
23. 『중용율곡선생언해』 : 1749년 - 유학
24. 『순언』 : 1750년 - 도교
25. 『윤음언해』 : 1752년 - 조칙
26. 『주석천자문』 : 1752년 - 역학(자전)
27. 『불설아미타경요해』 : 1753년 - 불경
28. 『친의소감언해』 : 1755년 - 유학(경세)
29. 『어제훈서언해』 : 1756년 - 유학(경세)
30. 『종덕신편언해』 : 1758년 - 유학
31. 『어제경세문답언해』 : 1761년 - 유학(경세)
32. 『어제경세문답속록언해』 : 1763년 - 회고록(경세)
33. 『지장경언해』 : 1763년 - 불경
34. 『어제조훈언해』 : 1764년 - 유학(경세)
35. 『박통사신석언해』 : 1765년 - 역학
36. 『박통사신역언해』 : 1765년 - 역학
37. 『몽어유해』 : 1768년 - 역학
38. 『십구사략언해』 : 1772년 - 역사
39. 『삼역총해』 : 1774년 - 역학
40. 『명의록언해』 : 1777년 - 유학(경세)
41. 『신석소아론』 : 1777년 - 역학
42. 『팔세아』 : 1777년 - 역학

43. 『신석팔세아』 : 1777년 - 역학
44. 『방언유석』 : 1778년 - 역학
45. 『속명의록언해』 : 1778년 - 유학(경제)
46. 『개수첩해신어』 : 1781년 - 역학
47. 『효유운음언해』 : 1784년 - 조칙
48. 『화동정음통석운고』 : 1787년 - 역학(운학)
49. 『몽어유해보편』 : 1790년 - 역학
50. 『무예도보통지언해』 : 1790년 - 병학
51. 『첩해몽어』 : 1790년 - 역학
52. 『신번첩해몽어』 : 1790년 - 역학
53. 『인어대방』 : 1790년 - 역학
54. 『가례석의』 : 1792년 - 유학
55. 『증수무원록언해』 : 1792년 - 의학(법의학)
56. 『중간노걸대언해』 : 1795년 - 역학
57. 『경신록언석』(경신록언해) : 1796년 - 도교
58. 『첩해신어문석』 : 1796년 - 역학
59. 『동몽선습언해』 : 1797년 - 역학(자전)
60. 『오륜행실도』 : 1797년 - 유학

(마) 19세기

01. 『신간증보삼략직해』 : 1805년 - 병학
02. 『태상감응편도설』 : 1848년 - 도교
03. 『관성제군명성경언해』 : 1883년 - 도교(관성교)
04. 『화음계몽언해』 : 1883년 - 역학
05. 『예수성교전서』 : 1887년 - 종교(기독교)

5.2. 조선 시대 번역의 방향성

위 (1)에 제시된 조선 시대의 번역 일람표를 검토해보면, 시간의 추이에 따라 어느 정도 눈에 띄게 드러나는 몇 가지 흐름을 읽어낼 수 있다. 우선 세기를 통틀어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폭넓게 등장하는 번역서의 부류는 불교 경전 또는 불교 관련 서책과 유교 경서 및 역학서, 의학서 등이다. 불교와 유교 관련 번역서는 주로 통치 철학의 확립을 통한 백성들의 교화를 목적으로 간행되었고, 문자학과 성운학 및 인접 언어 학습서를 총괄하는 역학 관련 번역서는 국자인

훈민정음의 창제와 외교 정책의 근간인 사대교린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행되었으며, 의학 관련 번역서¹⁷⁾는 17세기까지 등장하는 농서와 함께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민심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간행되었다. 그렇다면 적어도 18세기까지 조선 시대의 번역을 견인한 주된 동력은 왕권의 유지와 강화, 외교 정책의 원활한 수행, 민생의 안정 등 세 가지 체계였으며, 이들 중심 체계는 각각 지배 계층의 이념적 정체성 확립과 국가 간 생존 전략의 수행 및 피지배 계층의 생활 안정을 통한 민심의 획득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흐름을 염두에 두고 시기별로 번역의 양상을 좀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5.2.1. 15세기 번역의 흐름

(2) 15세기 번역의 유형별 분포

- 가. 불경 : 19책
- 나. 역학 : 3책
- 다. 의학 : 2책
- 라. 유학 : 2책
- 마. 문학 : 2책
- 바. 법령, 농사(잡업), 역사 : 각 1책

위 표 (2)를 통해 이 시기의 번역을 일별해 보면, 불경¹⁸⁾이 압도적으로 많다. 조선이 성리학을 통치 철학의 근간으로 삼아 성립된 국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번역 양상은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여기에는 개인적으로 불교를 신봉하고 후원한 세종과 세조의 역할도 간과할 수 없겠지만, 그보다

17) 물론 이들 세 가지 동력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예컨대 한영우(327)에서는 훈민정음 창제 배경에 대해 “조선개국 후 민족의식이 높아지고 민본사상이 발달하면서 백성들이 배우기 위한 우리 문자를 만들어 국가의 통치 이념을 백성들에게 직접 전달할 필요성이 커졌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18) 불교와 관련된 서간문은 불경에 포함시켰다.

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정치적인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즉, 고려 시대 이래로 민간에 뿌리를 내려온 신앙을 일거에 없앨 수 없었으므로, “이단의 극심한 사회적 폐단은 개혁했으나, 민족 문화로서의 순기능과 종교적 기능은 용납하여 관용하는 정책을 폈던 것”(한영우 2006: 338)이며, 특히 이 시기에 간행된 대부분의 불경이 일종의 국가기관인 <대장도감>에서 인출되었다는 것은 불교에 대한 지배층의 시각을 대변해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것은 의학서인데, 한자로 쓰여진 『訓民正音』을 우리말로 번역한 『훈민정음언해』와 새로 창제된 국자를 이용해 한자음을 바로잡고자 한 『홍무정운역훈』 및 인접 국가 중에서도 가장 가깝고 접촉이 빈번했던 왜를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인 일본어 가나 문자의 독음을 학습하는 『이로과』 등이 여기에 속한다.¹⁹⁾

의학서인 『간지방』과 『구급간지방』은 민간용 의료 처방으로 훈민정음의 대중 교화 기능을 잘 살린 경우이다. 그리고 유학서로는 『내훈』과 『삼강행실도』가 있는데, 이들은 본격적인 성리학의 철학 체계를 다룬 유교 경서라기보다 그 도덕적 기능을 통치의 질서 유지라는 측면으로 활용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다.

건국 초기의 국정 운영에 필수적인 법령집의 기능을 수행한 『大明律直解』(대명률직해)와 잡업의 실체를 다룬 『養蠶經驗撮要』(양잠경험촬요)는 이두를 번역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한편 조선 초기의 문학 번역으로 『용비어천가』와 『두시언해』 두 책만이 눈에 띄는 것은 15세기의 문학 창작이 여전히 한문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²⁰⁾

5.2.2. 16세기 번역의 흐름

(3) 16세기 번역의 유형별 분포

가. 유학 : 10책

19) 조선 초기의 사역원에는 한어(중국어), 여진어(청어, 만주어), 몽어(몽골어), 왜어(일본어) 외에도 유구어와 위구르어 역관도 있었다. 이덕일(29) 참고.

20) 간행 연대가 분명한 번역서만을 대상으로 했음을 상기해야 한다. 잘 알려진 『백련초해』도 그러한 이유로 목록에서 빠졌다. 조선 시대 초기의 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양상에 대해서는 한영우(2006: 332-333)를 참고할 수 있다. 물론 후대로 내려가면 시조, 가사, 소설 등 한글로 문학 작품을 창작하는 경향이 우세해진다.

- 나. 불경 : 9책
- 다. 역학 : 4책
- 라. 의학 : 4책
- 마. 농사 : 1책

위 표 (3)을 통해 이 시기의 번역을 일별해 보면, 우선 불교와 유교의 번역 분포가 역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사람이 중앙 정치 무대에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사건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²¹⁾ 그리고 그 내용도 이전 시기보다 훨씬 심화되어 성리학의 이념을 실제 정치 현실에서 사회적으로 구현하는 원전을 번역한 『여씨향약』, 『경민편』이라든가, 정통 경서를 번역한 『칠서언해』, 『효경언해』 등이 나타나고 있다.

불경의 번역을 보면, 숫자상으로는 유학과 엇비슷하지만 실제 내용상으로는 이전 시기에 비해 현격하게 세력이 위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는 『선가구감언해』, 『발심수행장』 등 개인의 수행을 위주로 하는 번역서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서, 본격적인 경전의 언해가 주종을 이루던 15세기와 대조된다. 특히 이 시기의 불경이 상당수 지방 사찰에서 간행된 것도 주로 중앙에서 관찬으로 간행되었던 15세기의 상황과 비교하여 이 시기 불교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된다.

역학과 의학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이어졌다. 전자로는 오늘날에 사용하는 한글 자모의 순서와 명칭을 결정한 『훈몽자회』와 천자문이 이 시기에 등장하고, 후자로는 민간 의료지침서인 『촌가구급방』과 이두가 번역에 사용된 『牛馬羊猪染疫治療方』(우마양저염역치료방) 등이 이 시기에 등장한다.

농업을 산업의 근본으로 삼았던 조선 시대에 농서의 번역이 상대적으로 빈

21) “성리학을 도덕수양의 측면에서 생각하는 인사들은 조선왕조 개국에 반대하여, 성리학은 재야의 학문으로 발전하다가 16세기경부터 다시 두각을 나타내어 사람으로 등장했다.” 한영우(2006 320) 참고. 이현희(1996 216)에서도 “두 형제[김안국, 김정국]가 지방에서 [백성들의] 교화를 위해 교화서를 펴낸 것은 당시에 사람과가 대두하면서 유교로써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보려던 사상사적인 흐름과 관련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 유교 관련 번역서는 통치 이데올로기 체계의 변화를 선도한 번역으로 볼 수 있다.

약한 것은 농사의 속성상 풍토와 기후가 다른 중국의 경험과 지식이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 없었던 것이 근본적인 이유로 생각된다.²²⁾ 실제로 조선 시대 초기에는 농업을 국가적으로 적극 장려하여 『衿陽雜錄』(금양잡록), 『農事直設』(중사직설) 등의 저서가 한문으로 찬술되고, 농사에 필수적인 강수량을 재기 위한 측우기가 발명되는 등 농업의 진흥과 관련된 각종 정황을 목격할 수 있다. 위에 제시된 목록 (1. 나)의 『구황촬요』도 한문 원본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세종이 지은 『救荒辟穀方』(구황벽곡방)을 저본으로 삼은 번역서로 알려져 있다.

5.2.3. 17세기 번역의 흐름

(4) 17세기 번역의 유형별 분포

- 가. 의학 : 4책
- 나. 역학 : 4책
- 다. 유학 : 3책
- 라. 병학 : 3책
- 마. 불경, 농사 : 각 1책

위 표 (4)를 통해 이 시기의 번역을 일별해 보면, 우선 양적으로 번역 활동이 상당히 위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이 시기가 왜란(임진왜란, 정유재란)과 호란(정묘호란, 병자호란)이라는 엄청난 전란을 겪으면서 국가의 기반이 위태로울 정도로 커다란 피해를 입은 시대라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17세기의 번역 양상을 이해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전란이라는 국가적 사건이 핵심 개념이 되어야 한다.

의학 분야에서는 전란으로 소실된 의서를 다시 편찬하여 의학적 전통을 되살리는 동시에 전란으로 창궐한 질병 치유를 위해 편찬된 『언해태산집요』, 『언해두창집요』, 『벽온신방』 등이 눈에 뜨인다. 특히 앞의 두 번역서는 허준이 번역하여 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2) ‘언해’라는 어구가 서명에 들어간 『농서언해』와 『잠서언해』는 번역이 아니라 김안국의 저술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분류 일람표와 분포에서 제외했다.

역학 분야에서도 이전 시기의 흐름을 이어 인접 국가를 이해하고 그들과 교통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외국어 역학서가 지속적으로 간행되었는데, 대표적인 중국어와 일본어 학습서인 『노걸대언해』, 『박통사언해』, 『첩해신어』 등이 이 시기에 간행되었다. 여기에는 명에 대한 일방적 사대주의에서 벗어나 후금과 일본을 상대로 실리 외교를 펼친 광해군의 현실 인식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을 것이다(박영규 260-267).

유학 분야에서는 새로운 사상적 변경을 개척하거나 철학적 심화를 도모하는 번역보다는 전란으로 파괴된 유교적 기본 질서를 복구하는 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리하여 기본적인 유교 경전의 뜻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서삼경석의』, 일반 백성들이 따라야 할 가부장적 질서를 강조한 『동국신속삼강행실도』, 『가례언해』 등이 번역 간행되었다.

이 시기의 번역 양상 중에서 가장 특이한 것이 바로 병학과 관련된 번역서의 출현이다. 이러한 양상도 역시 전란이라는 요소가 크게 작용했음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두세 차례의 전란을 수세적으로 치르면서 자연스럽게 국방력의 강화라는 명제에 주목하게 되었고, 그 실행 방안으로 군사 제도의 개편과 함께 무기 체계의 혁신과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을 것이다.²³⁾ 『연병지남』이나 『화포식언해』, 『신전자취염초방언해』²⁴⁾ 등은 모두 이러한 사회적 배경과 수요에서 비롯된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5.2.4. 18세기 번역의 흐름

(5) 18세기 번역의 유형별 분포

- 가. 역학 : 28책
- 나. 유학 : 19책
- 다. 불경 : 4책
- 라. 도교 : 3책
- 마. 조칙 : 2책

23) 박영규(243-244) 참고.

24) 이덕일(146-165)에 의하면, 특히 총포 제작과 관련된 염초의 수입은 명과 청에서 엄격한 통제를 받았다고 한다.

바. 역사 : 2책²⁵⁾

사. 의학, 병학 : 각 1책

위 표 (5)를 통해 이 시기의 번역을 일별해 보면, 역학과 관련된 번역이 양적으로 크게 팽창했고, 유학과 관련된 번역이 다시 진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역학 관련 번역서의 목록과 내용을 보면, 이전 시기에 간행되었던 책이 중단되거나 다시 번역된 경우도 적지 않았지만(예: 『중간노걸대언해』, 『박통사신석』, 『개수첩해신어』 등), 실질적인 외국어 학습의 대상도 과거에 비해 훨씬 심화되고 다양화되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는 크게 두 가지 배경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하나는 왜란과 호란을 겪으면서 인접 국가와의 정치적 역학 관계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배태된 점이고, 다른 하나는 앞선 배경과 표리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지만 이 시기에 들어서 경제력을 바탕으로 부쩍 성장한 역관 계층에 대한 사회적 전망의 과장이 컸다는 점이다.²⁶⁾

유학 분야에서는 이전 시기에 간행된 경서가 전란으로 망실된 상태에서 다시 간행된 사례가 많다. 제목에 ‘어제’라는 명칭이 붙은 『어제내훈언해』, 『어제소학언해』 등이 그러한 경우에 속한다. 또 국왕이 치국의 방도를 후대에 전한 『어제경세문답언해』, 『어제명의록언해』 등이 등장한 것도 이 시기 번역의 특징인데, 전란 이후에 새로운 통치 질서를 모색하던 영·정조 시대의 자부심이 반영된 현상으로 생각된다.²⁷⁾

한편 종교적인 분야에서 눈에 띄이는 것은 조선 초기에 이단으로 취급되어 역사의 전면에서 자취를 감추었던 도교 관련 번역서의 출현이다. 『주성연스모응진경』, 『순언』, 『경신록언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조선 후기에 들어 새로 나타난 수련도교의 성행이라는 현상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즉, 잇단 사회와 당쟁을 겪으면서 향촌에 은거한 지식인들 사이에서 심신의 연마를 위한 수련도교가 유행하던 차에, 왜란을 전후해서 전 세계적인 기근과 질병이 만연하여 질병 치료의 수단으로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한다(한영우

25) 회고록은 역사에 포함시켰다.

26) 조선 시대 역관의 경제력과 정치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이덕일을 참고할 수 있다.

27) 18세기 후반에 문화정치를 표방한 정조의 역할도 이러한 흐름에 크게 기여했다. 한편 주제별 분류에서는 유교적인 내용이 많아서 유학에 포함시켰다.

2006 420-421). 또 한 가지 특기할 것은 『운음언해』, 『효유운음언해』 등과 같은 조칙류의 등장인데, 국왕과 백성 사이의 원만한 소통을 반영한 현상으로 생각된다.

5.2.5. 19세기 번역의 흐름

(6) 19세기 번역의 유형별 분포

가. 도교 : 2책

나. 기독교 : 1책

다. 병학 : 1책

라. 역학 : 1책

이 시기의 번역은 일단 양적으로 많지 않아서, 도교에 대한 관심의 지속과 기독교 관련 번역서의 등장 정도가 눈에 띄일 뿐이다. 전자는 사회적인 혹은 사상적인 혼란을 반영하는 것이고, 후자는 타의에 의한 개국으로 서양 문물이 유입되면서 함께 들어온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일반에 상당히 퍼져 있었다는 반증이 될 것이다. 천주교가 처음 소개된 것이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 걸친 시기였는데, 그 당시 천주교는 종교로서보다 서양 학문의 하나로 이해되어 ‘서학’(西學)이라고 불렸다(한영우 2006 450). 천주교는 18세기를 거쳐 19세기 중반까지 신유사육과 기해사육 등 수차에 걸친 조정의 박해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교세는 크게 번성하여 19세기 중엽에 1만이던 신도의 수효가 19세기 말에는 3만에 가까워졌다고 한다(한영우 2006 452). 기독교 경전의 번역이 등장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될 수 있다.²⁸⁾

5.3. 조선 시대의 사회문화적 발달과 번역 패러다임의 변모 양상

우리는 지금까지 세기별로 번역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반적인 흐름을 주도한 세 가지 중심 체계를 확인하고, 이들 중심 체계가 시대에 따라

28) 실제로 이현희(1999 240-241)에 따르면 갑오경장 이후로 1910년까지 한글로 번역되어 나온 성서류가 각종 문서를 제외하고도 29편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조금씩 모습을 달리하거나 시대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하위 체계가 출현하는 양상을 목격할 수 있었다. 여기서는 이와 같은 중심 체계와 하위 체계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고 그 변모 양상을 개괄하면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그러한 변모 양상이 조선 시대 사회문화의 발달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논의해 보기로 한다.

편의상 조선 시대의 번역을 견인한 세 가지 중심 체계를 다시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통치 이데올로기의 체계로, 통치 철학의 확립을 통한 백성 교화의 기능을 수행했는데, 이는 불교와 유교 관련 번역으로 나타났으며, 궁극적으로는 왕권의 유지와 강화에 이바지했다.

둘째는 외교적 생존전략의 체계로, 사대교린 정책의 바탕이 되는 외국어 학습을 도와주는 기능을 수행했는데, 이는 역학 관련 번역으로 나타났으며, 궁극적으로는 외교 정책의 원활한 수행에 이바지했다.

셋째는 백성들의 생활을 돌보는 내치 안정의 체계로, 백성들의 일상에서 불편 요소를 제거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했는데, 이는 의학과 농업 관련 번역으로 나타났으며, 궁극적으로는 민심의 획득에 이바지했다.

통치 이데올로기의 체계에서는 15세기에서 16세기로 넘어가면서 불교에서 유교로 하위 체계의 주도권이 바뀌었다. 이는 도학적 성리학으로 무장한 사림의 등장으로 왕실 불교가 쇠퇴의 길을 걷게 되는 조선 사회의 발달 단계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또한 통치 이데올로기는 아니지만 18세기 사상사에 나타난 도교 관련 번역은 15세기 말부터 16세기에 걸친 사화를 겪으면서 현실에 염증을 느낀 지식인들 사이에서 도교와 신선 사상을 신앙하기 시작하여 전란을 치른 후에 더욱 확산되는 사회 문화적 발달과 동태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1887년에 나온 신약전서의 번역판 『예수성교전서』는 16세기 말과 17세기 초에 전래된 천주교(서학)의 교세가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비약적으로 확산되는 시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외교적 생존 전략의 체계는 15세기와 16세기에 주로 중국어를 다루는 한학과 일본어를 다루는 왜학에 관련된 학습서가 주로 간행되었지만, 17세기를 거쳐 18세기에 이르면 실질적인 관심의 대상이 한학과 왜학뿐만 아니라, 몽학과 청학(만주어)까지로 확대된다. 말하자면 하위 체계가 다양해졌다고 말할 수 있

는데, 이러한 하위 체계의 다변화 양상도 왜란과 호란이라는 양대 전란을 경험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내치 안정의 체계는 조선 시대의 모든 시기에 걸쳐 꾸준히 이어졌다. 이는 조선 왕조가 백성의 지지를 전제로 하는 왕도정치를 표방하고 농업을 산업의 중심으로 삼은 이상,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다만, 조선 시대 후기에 들어 실학의 융성과 함께 북학파의 영향으로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는데, 이처럼 농업 중심사회에서 상공업 중심사회로 넘어가는 산업사회의 변화를 번역의 흐름에서 확인할 수 없음을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산업의 측면을 논외로 하고 실학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그 본성이 주체적 민족의식과 관련된 것이어서 번역의 흐름이 여기서 벗어나 있었던 것도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닐지 모른다.

6. 맺음말

조선 시대는 문자 그대로 번역의 황금 시대였다. 번역의 역사를 통해서 등장하는 모든 번역 양식과 번역 기법이 조선 시대의 번역에 그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다중체계 이론을 분석의 틀로 삼고, 조선 시대에 이루어진 번역 자료를 내용별로 분류하여, 조선 시대의 번역을 이끌어간 중심적인 체계를 추출해 보고자 했다. 그 결과, 우리는 조선 시대의 번역을 견인한 세 가지 중심 체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논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통치 이데올로기의 체계로 통치 철학의 확립을 통한 백성 교화의 기능을 수행했는데, 이는 불교와 유교 관련 번역으로 나타났으며, 궁극적으로 왕권의 유지와 강화에 이바지했다.

둘째는 외교적 생존전략의 체계로 사대교린 정책의 바탕이 되는 외국어 학습을 도와주는 기능을 수행했는데, 이는 역학 관련 번역으로 나타났으며, 궁극적으로 외교 정책의 원활한 수행에 이바지했다.

셋째는 백성들의 생활을 돌보는 내치 안정의 체계로 백성들의 일상에서 불편 요소를 제거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했는데, 이는 의학과 농업 관련 번역으로 나타났으며, 궁극적으로 민심의 획득에 이바지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중심 체계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그 하위 체계에

서 변화를 노정하게 된다. 중요한 변화만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통치 이데올로기의 체계에서는 초기에 불교와 유교가 백성 교화라는 측면에서 서로 협력하는 상호보완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16세기를 기점으로 긴장 관계를 보여 유교가 불교를 압도하게 된다. 이는 16세기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사림이 이전 시기의 왕실 불교를 압박하는 역사적 사건 전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외교적 생존전략의 체계에서는 건국 초기에 한학과 왜학 위주로 비교적 단순한 양상을 보이다가 양대 전란을 겪고 난 다음에 주변국 언어 전체를 망라하는 방향으로 다변화되고 심화된다. 내치 안정의 체계는 조선 시대 전반에 걸쳐 꾸준히 유지된다. 한편 번역과 사회 변화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극적인 사례는 병학 관련 번역이다. 양대 전란을 겪은 17세기는 생산과 문화가 크게 위축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번역 활동도 이전 시기에 비해 양적으로 엄청나게 줄어드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병학 관련 서적이 일부 번역된 것은 국가적 관심사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알려주는 좋은 사례라고 하겠다.

본고에서 확인한 이와 같은 중심 체계와 그 변화 양상은 번역의 흐름 밖에 위치한 또 다른 거대 체계들, 예컨대 비번역 한글 문헌이나 한문 문헌들이 보이는 체계들과의 상호 비교를 통해 정당한 역사적 위상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즉, 이들 체계를 모두 포괄하는 거대 체계를 상정하면, 그 안에서 중심 체계를 선도했거나 해당 체계의 공백을 메운 번역 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언급할 것은 번역사의 논의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 번역가에 대한 조사 연구인데, 이는 조선 시대의 번역사 기술에서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실록 등의 관련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세종과 세조, 신미, 학조, 최항, 김수온, 최세진 등이 남긴 위대한 번역가로서의 행적을 복원하는 작업이 현재 필자의 다음 관심사이다. 특정 시대에 어떤 책을 번역했는가에 못지않게 누가 번역했는가도, 번역의 기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후고를 기약한다.

참고문헌

- 김병철. 1975. 『한국 근대 번역문학사 연구』. 서울: 을유문화사.
- _____. 1998. 『한국 현대 번역문학사 연구』(상/하). 서울: 을유문화사.
- 김석득. 2001. 『한글 옛 문헌 정보 조사 연구』(연구보고서). 문화관광부.
- 김영수. 2001. 『조선 중세 한문번역본의 언어사적 연구』. 서울: 역락.
- 김정우. 2005. 「한국 번역사 논의의 전체」. 『우리말연구』 16집, 139-161, 우리말학회.
- _____. 2008. 「한국 번역사의 시대 구분」. 『번역학연구』 9-1. 29-69. 한국번역학회.
- 김진아·도희진 역. 2006. 『번역학 비판(中西譯學批判, 2004, by 張南峰)』.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 남성우. 2006. 『통번역의 이해와 수행』. 서울: 한국문화사.
- 남풍현. 1998. 「고대 국어 자료 -국어학의 상대 자료-」. 『국어의 시대별 연구 3 고대국어』.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 _____. 1999. 『국어사를 위한 구결 연구』, 서울: 태학사.
- 박소동. 1995. 「퇴계 四書釋義의 경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영규. 2004. 『한 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서울: 들녘.
- 백두현. 2006. 「국어사 연구의 새로운 방향설정을 위하여」. 국어학 47. 3-38. 국어학회.
- 안병희. 1973. 「中世國語 研究 資料의 性格에 對한 研究 -翻譯樣式을 中心으로 하여-」. 『어학연구』 9권 1호, 75-86. 서울대 어학연구소.
- _____. 1976. 「口訣과 漢文 訓讀에 대하여」, 『진단학보』 41호, 143-165, 진단학회.
- 여찬영. 2003. 「조선조 언해서의 번역비평적 연구」. 배달말 33, 239-262. 배달말학회.
- 유명우. 2002. 「한국 번역사 정리를 위한 시론」. 『번역학연구』 3-1. 9-38. 한국번역학회.
- _____. 2004. 「한국 번역사에서 본 조선조 언해 번역」. 『번역학연구』 5-2.

69-91. 한국번역학회.

- 이기문. 1998. 『新訂版 국어사 개설』. 서울: 태학사.
- 이덕일. 2006. 『조선 최대 갑부 역관』. 서울: 김영사.
- 이현희. 1996. 「중세 국어 자료」. 『국어의 시대별 연구 1 중세국어』.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 _____. 1999. 「개화기 국어 자료」. 『국어의 시대별 연구 4 개화기 국어』.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 이희재 역. 2001. 『번역사 산책(翻譯史のプロムナド、1993, by Yumi Tsuji)』. 서울: 궁리.
- 전현주. 2004. 「다중체계 이론과 한국 현대번역문학사」. 『번역학연구』 5-1. 167-181. 한국번역학회.
- 최현배. 1982. 『(고친) 한글갈』. 서울: 정음문화사.
- 한영우. 2006. 『다시 찾는 우리 역사』. 서울: 경세원.
- 홍운표. 1997. 「근대 국어 자료」. 『국어의 시대별 연구 2 근대국어』.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 Baker M. 1998. (ed)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Basnett-McGuire. 1980. *Translation Studies*. Methuen, London: Routledge.
- Jakobson, R. 1959. "On Linguistic Aspects of Translation" in R. A. Brower, (ed) *On Translation*. Massachusettes: Harvard UP.
- Kim, Ji-won. 2008. "The Korean Tradition of Translation: From the Primeval Period to the Modern Era." *Journal of Language & Translation* 9. 1. Institute for Language & Translation, Sejong University.
- Nida, E. A. & C. R. Taber. 1969.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Brill.
- Nord, Christiane. 1991. *Text Analysis in Translation*. Amsterdam: Rodopi.
- Pym, Anthony. 1998. *Method in Translation History*. Manchester: St. Jerome.

국사편찬위원회 이조실록 원문과 번역문 및 색인 <http://sillok.history.go.kr>

[Abstract]

The Socio-cultural Function of Translation in Joseon Dynasty

Kim, Jeong-Woo
(Kyungnam University)

This paper aims at revealing the historical socio-cultural significance of translations produced in Joseon dynasty; that is, how the translations in Joseon dynasty contributed to the socio-cultural development at that time, by classifying those translations in terms of period and subject, and relating them to the background in which those translations were produced. It is in other word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translation phenomena in Joseon dynasty by two parameters: the function and history of translation.

The three main and important systems which dragged the translations in Joseon dynasty were as follows:

First, the governing ideological system revealed in the translations on Buddhist and Confucian scriptures, functioned as taming subjects, and finally contributed to the maintenance and reinforcement of royal authority.

Second, the survival strategy system of foreign policy revealed in the phonetic translations related to foreign language learning, functioned as the infrastructure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ultimately contributed to the smooth performance of foreign policy.

Third, the system of stabilizing inbound country revealed in the translations on medical and agricultural texts, functioned as making subjects comfortable and eliminating discomfort from them, eventually contributed to acquiring popular feelings.

From the above 3 hyper-systems the small and minor sub-systems appeared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 of time and society. The representative

example which showed the close correlation of translation and its socio-cultural background is the translations on the military science and armory in the 17th century, the period after Koreans waged the two national wars.

▶ Key Words: translation history, social/ cultural function of translation, translation in Joseon Dynasty, *Eonhae*, poly-systems, reinforcement of royal authority, infrastructure of foreign policy, stability of daily lives of subjects

김정우

경남대학교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교수

kjwn@kyungnam.ac.kr

관심 분야: 번역이론, 번역사

논문투고일: 2009년 2월 9일

심사완료일: 2009년 2월 21일

게재확정일: 2009년 3월 7일